

2014년 도 제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4년 4월 2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박 원 식 위 원(부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윤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
	김 남 영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5호 —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4월)(안)>

(1)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이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4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조정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융안정보고서의 기본체계를 2013년 하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잠재위험요인 식별과 분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종전과 같이 거시건전성협의회가 원고작성 전반을 조율한 가운데 유관부서가 집필에 공동 참여하였음.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음.

2장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의 1절 ‘가계’에서는 주거비 등 경직적 성격의 가계지출 부담 증대, 가계소득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 하락과 가계소득 증가세 제약 소지를, 2절 ‘기업’에서는 이익률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가능성,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일부 기업의 차환리스크 증가를 잠재위험요인으로 다루었음.

3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의 1절 ‘은행’에서는 자산증가세 둔화 속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저하 소지, 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2절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 증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3절 ‘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시장에서의 신용차별화 현상 심화를, 4절 ‘외환건전성’에서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각각 잠재위험요인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금융안정 이슈 분석’에서는 최근의 가계 재무건전성 동태적 흐름 점검과 한계기업의 현황과 잠재리스크를 수록하였음.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본문에서는 간단명료한 서술, 그래프의 단순화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참고자료에서는 기술적이거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국가별 교육관련 시스템이 매우 다른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그림자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엔저 위험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분석과 관련하여 엔저가 업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외환건전성’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련 잠재위험요인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는 2003년 이후 반기별로 작성해 오고 있는데, 2012년 당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보고서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음.

첫째, 그간 작성해온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금융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 정책과제 제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 및 핵심 리스크(key risk)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과거 및 현재 보고서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분석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연계성 분석 강화를 위해 리스크 및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둘째,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시 금융 각 부문이 취약성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복원력(resilience)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4월)(안)(생략)